

도 '일본전통문화단' 여행상품 출시

'익산미륵사지·왕궁리유적지 연계' 지역먹거리·전통체험 중심 1~3박 상품... 6000명 유치 계획

전북도가 익산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지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출시해 '일본전통문화단'의 관광 입맛을 자극하고 있다.

도의 익산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지 연계 여행상품은 지난해 도와 소외여행기획이 함께 출시한 상품으로 진안 마이산, 전주한옥마을, 익산역사유적지구, 내장산(계절상품), 지역먹거리와 전통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여행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한 여행상품은 앞서 2015년 도를 방문한 '일본전통문화단'이 74회에 걸쳐 3,396명 방문했다.

전북도는 올해 다양한 홍보마케팅과 세계유산, 한글 음식, 스포츠를 연계한 먹거리, 볼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전통문화단' 6,000여명을 올해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올 2월과 3월 도에 방문한 '일본전통문화단'은 19회에 걸쳐 455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기본 1박에서 3박을 하며 도의 아름다움을 한껏 즐겼다.

도는 지난해 일본의 호쿠리쿠 TV와 미에TV 등을 통해 이번에 출시한 여행상품 중심으로 전주한옥마을과 비빔밥 체험, 태권도원과 태권도체험 등 주요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일본 페이스북에 전북도 공식 채널 운영과 아메바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해는 지난해 방문한 관광객 수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일본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팸투어를 시행하고 백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인사를 나누고 있다.

2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업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북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송하진 도지사기와 위원들과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본 단카이세대

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 및 교류를 좋아하는 동호회 회원 등을 공략하는 여행상품도 올 하반기에 집중 출시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올해 8월 말에는 익산미륵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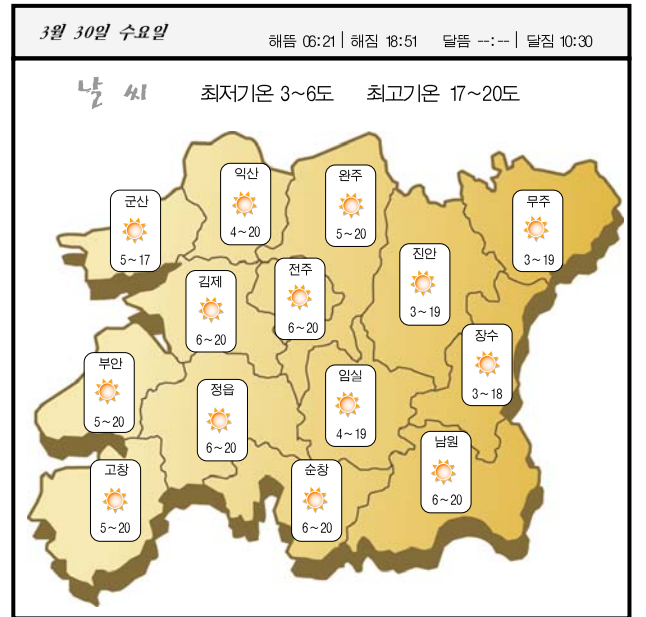
와 왕궁리유적, 한글교실 그리고 음식

체험 등 3박4일 상품으로 일본 현지 내 동호회 80여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도 유권주 관광총괄과장은 "일본 전통문화단 및 체험단은 전라북도를 꾸준히 찾는 여행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특히 세계유산지인인 미륵사

지, 왕궁리유적, 고인돌유적 및 농악

등을 활용한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여행상품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함께, 인근 공주, 부여 등 백제역사와 연계하는 공동여행상품 개발 등 협력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주 기자



“세월호 참사” 잊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 4월을 '희생자 추념 기간' 선정

전북도교육청이 4월 한 달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기간으로 정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세월호 2주기 추념행사 주제를 '해도와 기억'으로 슬로건은 '기억의 힘은 강하다'로 정하고 다양한 추념행사를 펼친다.

우선 도교육청은 내달 1일 김승환 교육감과 본청 간부,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 등 100여명이 참가 현장인 팽목항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이어 5일에는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교육공동체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4.16 세월호참사 2주기 국가, 사회, 교육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9일에는 도내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교육청 광장에서 세월

호 참사 추모 및 학생 안전을 주제로 협동 걸개그림 그리기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세월호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에는 오후 7시부터 도교육청 광장에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식'을 거행한다.

또 이날 세월호 희생자인 고 박예슬·빈하은 학생의 작품 전시회 제막식이 도교육청 1층 갤러리에서 열리고 '기억의 의자+' '하늘나라 우체통'이 설치돼 세월호 참사 관련 영상이 상영된다.

아울러 학부모지단은 세월호 리본과 아크릴자켓을 제작해 추념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밖에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그린 세월호참사 관련 그림으로 세월호 참사 상징물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3D프린팅·드론산업 집중 육성

다음달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개소·'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개소식 및 시연회'

전주시가 탄소산업에 이어 3D프린팅과 드론산업을 미래 100년을 책임질 먹거리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전주시는 3D프린팅산업과 드론산업, 사물인터넷 등 미래혁신산업에 역량을 집중시켜 미래 주력성장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3D프린팅산업의 발달은 AI(인공지능)산업과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 IT(사물인터넷)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제조방법에 혁명과 혁신을 가져올 제4의 산업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시는 다음달 교육장과 시제품 제작실 기업지원실, 창의공간 등 3D프린팅 종합지원체계를 갖춘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를 개소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의 개소에 맞춰 전주만의 신성장산업 모델을 만들어 3D프린팅산업 중심 도시 역할을 주도해나갈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탄소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고분자 소재 기반 장비와 소재, SW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국내 최초로 초대형(2m) 3D프린팅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개발된 초대형 3D프린터를 지형도와 건축물 시 캐리터 등 대형제품 제작에 활용하고, 산업적 활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주만의 차별화된 전통문화와 탄소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 및 기업지원 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세계 3D프린팅 산업의 발전 동향을 알아보고 전주 3D프린팅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16 전주 3D프린팅 한국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 3D프린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전자부품연구원 신진국 센터장과 대립화학 신홍현 사장이 각각 3D프린팅 산업의 저변확대와 활용분야와 3D프린팅 핵심은 소재의 혁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나눴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참여기업과 스타라타시스코리아, 전북3D프린팅협동조합, (주)포드게이트, 하이브전시스템, 메이커스코리아, 전북대 무한상상실 등의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관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1일에는 '무인비행장치 안정성 검증 시범사업 개소식 및 시연회'를 개최하는 등 드론 산업 육성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기계경량화 배터리 등 경량화 소재인 탄소산업을 융합한 기술개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시는 미래 100년을 책임질 먹거리산업으로 3D프린팅산업을 집중 육성, 제조업 혁명을 이끌어갈 선도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전북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심장수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중

합병원과 종합병원 7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수술건수 ▲수술시 내흉흉맥을 사용하는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재수술 비율 ▲수술 후 사망률(30일내)과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이다.

/김영재 기자

